

초등
5~학년

책고래
책이랑 놀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수영성 소년 장이

글 구본석 / 그림 장은선

책 읽기는 ‘놀이’ 다

‘독서’와 ‘책 읽기’, 이 두 단어에서 오는 무게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독서 할까?”라는 말보다는 “책 읽을까?”라는 말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각자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서’는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든다. 독서 일기, 독서 목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다. 반면 ‘책 읽기’는 가벼운 느낌이 든다. ‘꼭 읽어야 해!’가 아니라 ‘한번 읽어 볼래?’하는 마음의 자유로움이 강조된다.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붙여 보자. 자유롭게 ‘함께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시행 이유일 것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이라는 양의 의미가 아닌 ‘읽기’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 행위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책 읽기는 다양한 방법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고래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책을 읽을까?’를 연구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책 읽기’는 곧 ‘놀이’다.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작가, 등장인물, 선생님,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간다. 그래서 책 읽기는 단순히 독해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을 읽어가는 소통의 좋은 방법이다.

학년, 중학년의 책 읽기는 재미와 경험의 다양성이 함께 해야 한다.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활동을 해 봄으로써 책과 일상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학년의 책 읽기는 공감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가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요즘 행해지고 있는 ‘온작품 읽기’는 작품을 온전히 다 읽어 봄으로써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책 속의 다양한 길을 혼자도 걸어 보고, 함께 걸어보면서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 가다 보면 읽기의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 즐거움의 길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심중수(어린이책 작가, 한국어 강사)

수영성 소년 장이

글 : 구본석 / 그림 : 정은선



☆ 학년군 5, 6학년 중심 국어

[5학년] 작품 감상하기 / 주인공이 되어

[6학년] 이야기를 간추려요 / 작품 속 인물과 나

- 작품 속 세계를 상상하며 감상한다.
- 작품 속 인물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와 비교하며 읽는다.

☆ 책소개

여기 임진왜란을 겪은 부산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인공 장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목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평화로웠던 마을에 왜군이 들이닥칩니다. 수군의 배를 만드는 일을 했던 아버지는 마을 청년들을 이끌며 의병 활동을 하고, 어린 장이는 친구 경래를 찾으러 몰래 왜선에 올랐다가 들켜 왜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된 어린 장이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수영성 소년 장이》는 역사책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임진왜란의 참혹함을 그저 평범하고 순박한 소년의 삶을 통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슬픔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학습 목표

역사는 국가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문학은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 줌으로써 역사의 아픔을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역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수영성 소년 장이》는 아이들이 ‘임진왜란’이라는 아픈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1. 내용과 연관된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2. 이야기가 주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인물의 처지에 대해 상상해 보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본다.
4. 이야기의 구성과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책 그림과 제목 살펴보기

- 앞표지의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앞표지 인물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말해 봅니다.
- 뒤표지의 글과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작품 속 삽화를 살펴보고, 소제목과 연관 지어 줄거리를 생각해 말해 봅니다.

▶ 책 관련 상황 이해하기

-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임진왜란’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해 봅니다.
-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을 조사하고 업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지금 가장 그리운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 봅니다.
- 선행을 베풀었거나 받은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장이는 황어 떼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 봄만 되면 찾아와 알을 낳고 금세 떠나 버리는 황어가 어릴 때 자신을 남겨 놓고 떠난 엄마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왜군이 침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 봉수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 장이의 아버지는 왜군이 들어오자 무슨 일을 하였나요?

: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 활동을 벌임.

▶ 장이는 어떻게 하다가 왜나라로 가게 되었나요?

: 친구 경래를 찾아 데려오려고 몰래 왜선에 올랐다 들키는 바람에

▶ 신부님을 따라 우연히 포르투갈로 간 장이가 일본으로 가는 동료를 통해 유끼 누나에게 전해 줄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 작은 배가 담긴 유리 상자와 고마움을 담은 편지

▶ 청년이 된 장이가 황어 떼를 보고 눈물 흘린 이유는?

: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이해, 창의적 활동

▶▶ ‘상징’에 대하여

- 상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를 찾아봅니다.
- 상징이 나타난 문학 작품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 ‘엄마, 아빠’ 하면 떠오르는 상징을 생각해 보고, 상징이 담긴 작품을 직접 써 봅니다.
- 발표를 통해 상징에 대한 이해와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해 봅니다.

▶▶ 내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 역사적 사건을 하나 선정하여 그 사건에 조사해 봅니다.
- 역사적 사건을 선택한 이유, 사건에 대한 개요와 사진, 조사를 통해 새롭게 안 사실 등을 발표해 봅니다.
- 자신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 역사적 인물의 삶을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니다.

▶▶ 나는야, 멋진 기술자!

-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생각해 보고, 디자인해 봅니다.
-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그 물건을 만들어 봅니다.
- 물건에 대한 소개와 그 물건을 만든 이유, 만드는 방법 등을 발표해 봅니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양과 기술로 만든 종이비행기 대회 등을 열어 학생들에게 재미를 더해 줍니다.
종이비행기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어 날려 봅니다.

▶▶ 오래된 벗, 친구(親舊)이야기

-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친해진 계기, 가장 즐거웠던 추억 등을 말해 봅니다.
- 우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 봅니다.
-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징표나 선물, 편지 등을 준비해 전해 줍니다.



[illegible]

지은이

읽은 시기

기억에 남는 한 줄

감상

[illegible]

지은이

읽은 시기

기억에 남는 한 줄

감상

책고래 책이랑 놀자

책고래는 아이들을 위해 글 씨앗, 그림 씨앗을 정성껏 뿌려 함께 기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책고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2길 23-4, 301호(양재동, 동방빌딩)

TEL. 02) 6083-9234 FAX. 02) 6083-9236 / 홈페이지. <http://www.bookgorae.com>